

야민정음과 급식체의 해체주의 표현연구

강옥미*

목 차

1. 서론
2. 해체주의와 한글 타이포그래피
3. 야민정음과 급식체의 해체와 문자유희
4. 결론

〈국문초록〉

최근 언론에서 야민정음과 급식체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소개되고, 케이블 TV나 방송에서 급식체 특강을 하고, 급식체를 이용한 과자 이름까지 출현했다. 야민정음은 시각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한글을 다른 글자로 대체하고, 글자의 방향, 읽기 순서, 띄어쓰기 등에서 활자의 보편성이 해체되고, 활자가 개인화되고 선형적인 문자구성이 해체되고 있다. 급식체는 ‘인정 어 인정’이 ‘용비? 어~천가’, ‘동휘? 박보검’ 등으로 대체되어 ‘인정’과 기의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오지고지리고랫잇 고아미고알파고...’ 등에서 ‘오지고’에서 ‘오지’를 자른 다음 마지막 음절 ‘고’만 같은 ‘지리고’, ‘랫잇고’, “아미고” 등으로 무한 반복하여 문자유희를 즐기고 있다. 기표와 기의의 1대 1 대응은 해체되고 무한한 기표의 유희가 일어나고 있다.

주제어 : 야민정음, 급식체, 해체주의, 시각유희, 놀이문화, 문자해체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PC통신 시대부터 청소년들은 은어를 사용했다. 2002-2003년 초중반 대한민국 월드컵 당시 ‘아햏햏’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후(장훈 2003: 144), 기존 통신언어문법과 다른 ‘외계어’가 등장했다(박정희·김민 2007; 신효철 2005; 강옥미 2004). 그 후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신조어 문체가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야민정음과 급식체도 이러한 인터넷 통신언어 계보 중의 하나이다. ‘ㅋㅋㅋ’와 같은 두자어는 초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한 때 유행하다 사라진 표현도 많다.

‘야민정음’이란 ‘국내야구갤러리’와 ‘훈민정음’의 혼성어(blending)이다. 야민정음은 2015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의 ‘국내야구갤러리’(이후 야구갤러리)에서 비슷한 글자들을 서로 바꾸어 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야민정음과 급식체는 야구갤러리와 일간베스트, 게임 사이트(스타크래프트, 서든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 등에서 폐쇄적으로 사용되다가, 대형 커뮤니티로 퍼져가면서 2015년부터 10대의 청소년들이 열성적으로 사용하였다. 급식체는 2009년부터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진행자들이 유행어를 만들어 유포했고, 시청자들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급식을 먹는 10대의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라고 하여 ‘급식체’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TV의 주 시청층은 10·20대가 전체 시청자의 60%이고(『경향신문』, 2014.04.18.),¹⁾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는 그 이상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²⁾

이성적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는 동시에 가상공간에서 문자를 해체하고

1) <먹방, 공방, 쟁방... 아프리카TV는 10·20대 소통의 장>, 『경향신문』 2014.04.18. 기사.

2) 최지혜(2017: 2-7)가 『2017 OECD 디지털경제아웃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보급률이 98.8%로 OECD 36개국 중 1위로,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서도 평균 83.8%를 훨씬 넘는 89.6%를 기록했다. 한국의 연령별 인터넷이용률은 16~24세 청년층이 99.9%이고, 주로 상품 정보검색과 소셜네트워크, 뉴스읽기 등 단발성의 간단한 활동에만 이용자 폭이 넓다.

기존문법을 파괴하며 노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이다. 인터넷 보급을 세계 1위에 사는 한국의 10대와 20대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나 다른 시청자 등과 쉴 새 없이 채팅을 주고받으며 친구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야민정음과 급식체에 나타난 한글해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30년대 이상이 『오감도』 연작시와 일련의 시에서 다양한 문자해체와 시각화를 시도했고, 1980년대 해체시나 이후 통신언어에서도 글자의 형태파괴, 배열의 전환, 규칙의 파괴 등의 언어유희(verbal pun)와 시각유희(visual pun)를 시도했다. 본고에서는 야민정음에 나타난 한글 자모해체를 시각유희로 보고, 급식체에 나타난 무한한 기표의 생성과 기의의 실종, 단어의 일부 절취와 무한반복을 해체를 통한 언어유희로 분석한다. 인터넷 게시판과 나무위키, 신문 기사, 텔레비전 방송의 자막, 광고의 클립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방법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언어학적 단위가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내용분석 하였다. 디지털공간에서 일어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와 짜깁기는 글자에 감정을 담아 자신의 정체성을 가상 공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문자유희의 일환이다.

2. 해체주의와 한글 타이포그래피

2.1. 해체주의 언어관

해체에 대한 시도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지만, 철학, 문학, 건축 및 전 예술 영역에 걸쳐 나타난 해체현상은 1960년대 말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해체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데리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모든 서양문화가 로고스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현전(présente: 주체 자신에, 자신의 기의에 현전하고)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 갇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해체로 모든 중심사고를 거부하고,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에 다양한 관심을 가졌다.

서양의 역사는 현전하는 로고스를 중시한 음성언어 중심의 역사였다. 소쉬르는 음성 언어는 영혼의 상태라는 기의를 나타내기 위한 ‘기표’인 반면,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라는 기표를 나타내기 위한 ‘기표의 기표’로 보았다.

“문자는 근원적인 제1기표의 기표이고, 자신(주체)에 현전하는 목소리의 대리 표상이고, 의미(기표·개념·관념적 대상 또는 기타 어떤 표현이든)의 즉각적이고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의미 작용의 대리표상이다. ... 중략 ...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상기해보자: 목소리가 내는 소리들은 영혼의 상태들을 나타내는 상징들이고, 쓰인 낱말들은 목소리가 내는 낱말들의 상징들이다. 언어와 문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기호체계이다. 후자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전자를 대리 표상하는 것이다.(데리다·김응권, 2004: 62)

소쉬르도 음성만 중요하게 여기고, 문자는 소리를 매개로 다시 영혼을 표현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표현수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데리다는 원시인류가 음성언어 이전에도 사람의 표정을 읽고 자연의 변화와 하늘의 별자리를 독해한 사실을 원시 문자, ‘원문자’로 파악하여, 음성언어 이전에 문자언어가 있음을 밝히며, 소쉬르의 음성중심 언어관을 해체하였다(고명섭, 2011).³⁾ 또한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표와 기의는 계속해서 분리되거나 지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의보다 훨씬 많은 기표가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표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 기의는 다시 여러 개의 기표들로 구성되고(치환되고), 이 기표의 기의는 또 여러 개의 기표로 구성되면서 기표의 유희만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데리다는 기호의 궁극적 의미가 끝없이 지연되는 것을 차연이라고 하였다(강옥미 2004: 84). 의미는 계속 차연되므로 하나로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데리다가 사용하는 해체라는 말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사상이나 관념들을 해체하고, 분해하여 복제, 짜깁기 등으로 재창조·조립한다.

3) 고명섭 <해체시대를 연 데리다의 그 책>, 『한겨레』 2011.01.07.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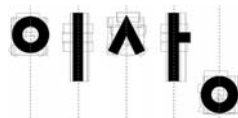
2.2.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전통적으로 글자 및 글자꼴, 인쇄과정을 거쳐서 출판된 결과물을 의미하나, 현대는 서체, 사진, 영상, 디자인, 조판 가독성을 포함한 글자에 의한 모든 의사소통의 조형적 표현을 포함한다. 데리다는 문자가 음성언어의 보조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문자도 음성과 기호로 동등하다고 보아, 텍스트의 객관성을 거부하고 텍스트의 구조와 개념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다. 따라서 데리다는 타이포그래피, 페이지 레이아웃, 자간과 행간, 구두법 등 문자의 시각적 그래픽적 성격에 주목했다(강옥미, 2004: 85-86).

현대사회는 이미지 중심사회이므로 의사소통방식도 전통적인 ‘문자를 읽는 행위’에서 ‘보는 행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시각적 자극에 반응을 더 잘 한다. 따라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한 활자 해체뿐만 아니라 활자 기호에서 조형적 아름다움이나 선형적인 활자배치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자의 시각화를 시도해왔다.



〈그림 1〉 다양한 한글해체



〈그림 2〉 받침 위치

름맹S더즌 바Y|프
토마 더 S|즈바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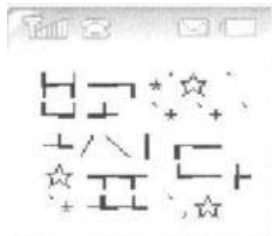
〈그림 3〉 한글과 라틴문자의 자소 해체

개인용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활자를 생산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누구나에게 주어짐에 따라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한글 해체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 한글 해체는 신세대들이 개성을 표출하는 놀이문화의 일종이다. 변윤연·이광호(2004: 35)는 청소년 세대의 언어 놀이는 코드가 공유되지 않으면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용어(동일한 언어코드)를 사용하여 또래 집단의 놀이에 동참하게 된다. 10대·20대는 디지털 공간에서 ‘야민정음’이나 ‘급식체’라는 인터넷통신언어를 사용하여 문자유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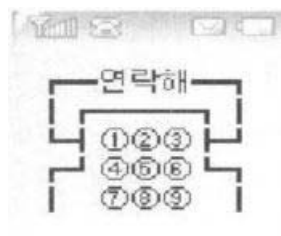
전광실(2008: 657-658)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 유형으로 활자의 해체(활자를 해체하여 이질적인 요소로 짜집기 하는 콜라주 형식), 그리드 레이아웃의 해체(중첩이나 세로쓰기), 이미지와의 조합(사진이나 이미지의 합성)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림 4〉 콜라주



〈그림 5〉 그리드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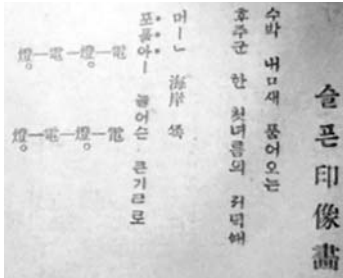


〈그림 6〉 이미지와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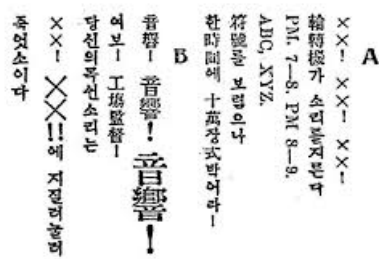
야민정음에서 시각적으로 유사한 자모자를 다른 활자로 바꾼 것은 위의 콜라주 형식에 해당한다. 전광실(2008)과 정홍균(2017)은 해체로 인해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활자의 조형적 구조와 가독성이 파괴되고, 언어가 상징체계로서의 기호가 아닌 그래픽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2.3.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해체 타이포그래피

전통적인 활자의 보편성에 대한 해체와 활자의 시각화는 이미 1920년대 한국의 근대사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다. 정지용의 『학조』 창간호(1926.6)에 나오는 <슬픈 인상화>에서 ‘내口새’, ‘머-ㄴ’, ‘큰기르’에서 종성이 초중성에서 분리되고, 電-燈-電-燈에서 ‘燈’의 아래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 <°카페°프랑스>에서는 ‘카’와 ‘프’ 자 앞에 기호 “°”을 넣었고, 시어 『꿈 이브닝!』의 서체만 다른 활자와 달리 했다.⁴⁾ 김니콜라이의 <윤전기와 4층 집>(1927.1)에서는 ‘音響!’의 활자 크기와 굵기가 점점 커지고, 기호 X, !, !! 등이 나타난다.



〈그림 7〉 정지용 <슬픈 인상화>



〈그림 8〉 김니콜라이 <윤전기와 4층집> 부분

정지용, 김니콜라이, 임화 등 소수에 의해 활자의 크기와 배치를 통해 실험되었던 해체 타이포그래피는 1930년대 이상, 김기림, 삼사문학 동인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한글 가로쓰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자하므로 좌에서 우로 읽기를 요구한다.

이상(1931)은 <線에 關한 覺書>에서 선형적인 읽기와 활자의 보편성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다.

4) 황지우(1983)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徐伐 서벌, 서벌, 서울, Seoul>에서 ‘광!’의 활자를 고딕체로 진하게 하여 다른 활자와 구별하고 있다.

線에 關한 覺書⁶¹⁾

數字의 方位學²⁾

4 ㄴ ㄹ ㅁ

數字의 力學³⁾

時間性(通俗事考에 依한 歷史性)⁴⁾

速度와 座標와 速度⁵⁾

ㄹ + ㄴ

ㄴ + ㄹ

4 + ㅁ

ㅁ + 4

〈그림 9〉 이상 〈線에 關한 覺書6〉

〈線에 關한 覺書6〉은 활자 ‘4’를 왼쪽으로 90°회전하여 ㄴ로, 오른쪽으로 90°회전하여 ㄹ로, 오른쪽으로 180°회전(상하반전)하여 ㅁ로 배치했다.⁵⁾ 아래 행에는 ㄹ+ㄴ, ㄴ+ㄹ, 4+ㅁ, ㅁ+4로 활자를 배치하여 시를 읽을 수가 없다. 이어령은 숫자 4의 개념을 버리고, 지도에서 북쪽 방위를 나타내는 화살표 4와 숫자 4의 도형이 같다고 보아, 4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각각 동서남북처럼 4방향을 지시한다고 설명한다(김상환 1992: 162 재인용).

1980년대 박남철과 황지우의 시에도 활자를 거꾸로 배치하고, 전통적인 구문을 파괴시키며 한글 해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박남철의 시 ‘권투’에서도 “오로지 이긴 선수들만 남아 있다”를 상하반전 하였고, 글꼴도 다르고, 읽기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 한다.

5) 이상, 1931년 10월 〈線에 關한 覺書6〉, 『朝鮮と 建築』에 발표된 日文詩.

팅 빈 경기장 ; 오로지 이긴 選手들만 남아 있다 ;
 石匠의 1012 鑿을 통해 1010 7810 : 가슴엔 상처들을 안
 고 ;

팅 빈 경기장 ; 레퍼터는 돈 해러 가고.

| 위대한 자본주의. |

〈그림 10〉 박남철의 〈권투〉

마지막 구절에 수학의 절댓값 기호 속 ‘| |’에 놓인 **위대한 자본주의**가 가장 큰 승자라는 것을 명시하는데,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 굵은 활자로 ‘위대한 자본주의’로 표현했다(이유진·전양덕 2009:158). 박남철은 〈권투〉 외에도 〈잠실통신〉에서 선형적인 읽기에 반기를 들고, 글자를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활자의 방향을 180°바꾼 것은 박진호(2017)에 따르면 15세기 한글을 창제한 후에 ‘석보상절’이나 ‘월인천강지곡’ 등의 책에서도 나타났다고 한다. 당시 드물게 쓰일 거라고 생각된 활자는 한 개만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에서 이 글자가 두 번 이상 나오자 활자를 180°돌려서 사용했다고 한다(예를 들면 ‘곰’이 두 번 나오자 ‘문’자를 뒤집어서 사용).⁶⁾

1934년 이상의 〈오감도〉의 연작시에서 붙여 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붙여 쓰기는 독자로 하여금 자세히 읽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조현용, 1996:53). 박남철의 〈잠실통신〉⁷⁾은 붙여 쓰기와 함께 읽기의 순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기하여 통사구조를 완전히 바꾸었다(이형권, 2003:600).

6) 박진호, 『야민정음, 발랄한 문자 놀이』, 『서울대저널』, 2017.

<http://www.snujn.com/news/33973>

7) 박남철, 『지상의 인간』,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36, 1984.

냐느아을'랑사'연과이들희너아들로포의망욕이라어들냐이들건중연과이들희너아
들이아의主地이라어들.....만지렸버어되가사잠리고레그라놀고든물리소그국결
는나고였리소한못지롭기향국결는리소'지지뽀'온나서에위.....

〈그림 11〉 박남철 〈잠실통신〉 부분

이러한 붙여 쓰기는 급식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황지우(1983)의 <徐伐 셔봔, 셔봔, 서울, Seoul>에서는 ‘꽝’을 한글 풀어
쓰기로 “ㄱㅏㅓ ㅓ ㅓ”로 해체하여 쓰고 있다.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띠리릭 띠리릭 띠리리리리리리릭
피웅피웅 피웅피웅 피웅피웅피웅피웅
꽝! ㄱㅏㅓ ㅓ!
PLEASE DEPOSIT COIN
AND TRY THIS GAME!
또르르르륵
그리고 또다른 동전들과 바뀌어지는
송송과 피웅피웅과 꽝!

〈그림 12〉 황지우(1983) 〈徐伐 셔봔, 셔봔, 서울, Seoul〉

한국 근대시에서 먼저 시작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해체현상은 야민정
음에 와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야민정음과 급식체의 해체와 문자유희

3.1. 야민정음의 시각유희(Visual Pun)

인터넷 공간에서 쓰이는 디지털 문자는 매체의 특성상 글자의 시각적 감성에 의지한다. 이 절에서는 야민정음에서 나타나는 시각유희(visual pu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각 유희는 형태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어느 한 글자가 다른 글자를 연상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가질 때 사용 된다. 이순만(2001:155)은 유희 개념에는 대치, 조합, 왜곡, 조작의 운용이라는 속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자를 의도적으로 조작이나 대치, 왜곡을 해야 하므로 한글자모는 자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

시각유희에서 대치(substitution)는 어떤 단어나 심벌에 다른 단어 또는 심벌을 대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그림13은 “I Love New York”에서 ‘Love’ 대신 ‘사랑’을 나타내는 ‘♥’로 대치하였다.









〈그림 13〉 Love 대신 ♥로 대치



‘황지우의 시 <日出이라는 한자를 찬, 찬, 히, 들여다보고 있으면>’⁸⁾ (1983)도 문자를 심벌로 대체하고 있다.

8)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1983, 72면.

‘日出’이라는 한자를 찬, 찬, 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에

 그 上上峯에
 하나
 그리고 그  아래
 그림자
 그 그림자 아래, 또
 그림자,
 아래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
 凹凸한 지붕들, 들어가고 나오고,
 찌그러진 △□들,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찌그러진 ♀ 우들
 88 올림픽 오기 전까지의
 新林山 10 洞 B地區가

〈그림 14〉 황지우 〈일출이라는 한자를 찬, 찬, 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서울의 빈촌 ‘신림동 10동 B지구’의 산동네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표인 한글
 이 아니라 실제 대상(referent)의 도상에 근거하여 특수기호-산은 으로,
 산 그림자는 로, 건물지붕의 모습은 凹凸(요철)이나 △□-로 대체했다.
 여자와 남자는 상징 ♀와 ♂로 대체했다(신진 2006:505, 이형권 2003:601).
 통신언어 중 2000년대 초반 유행한 외계어도 단어의 한 음절이나 자소를

동일한 음을 가진 한자, 한글, 라틴문자, 아라비아숫자로 대치하여 동음이
의어를 동의어로 처리하여 언어유희(verbal pun)로 처리하였다. 외계어는
(1)에서 보듯이 ‘음독, 음차(音借), 훈독(訓讀), 상형(象形), 상징, 기호 삼
입’ 등 다섯 가지 표기방식을 사용하였는데(신호철, 2005: 23), (2)에 나타난
외계어의 상형은 시각유희에 해당한다.

(1) 외계어 (강옥미, 2004: 92-94)

a. 한글을 한자로 훈독표기

★ 水 웨서노라넬끼쨌디. . .

(이딴 구린 물에서 노라도 될 것이지..)

b. 한글을 한자로 음차표기

ㄹㅇㅇㅇ 길좌ㅁ 마니마니 바뀐 갓네. 𑖇𑖇

(유 글자가 많이많이 바뀐 것 같네)

c. 한글을 라틴문자로 음차표기

g게시ㅁ(게시판)

d. 5날웅 요 日 1이어스 해피만땅스했능똥 ㅇㅇ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무척 기뻐는데.)

e. 상징기호 사용

☎㉡ ㅊ는㉡ ㉡㉡(전화)

(2) 외계어 (강옥미, 2004: 95-96)

a. 앙얼뤼폰 아글 얼ㄱㅣ냥? (안 올리면 이 글 올리겠냐?)

b. 카리스마 已 ㅂ원 (카리스마 러원)

c. 우乙I 이쁜이+ _ + (우리 예쁜이)

d. 人 ㅊ람과(사람과), 刀 ㅊ리~ (까리)

야민정음에 나타난 시각유희는 한글 자모자의 도상성에 근거하여 다른 자모와 모양이 비슷한 음절 전체나 일부 자모를 콜라주 방식으로 대체한다.

(3)

- | | |
|----------------|---------------|
| a. 귀엽다 → 커엽다 | 강귀태 → 강커태 |
| b. 멍멍이 → 땡땡이 | 머한민국 → 대한민국 |
| c. 관광명소 → 판팡팡소 | 팔도비빔면 → 팔도네넴면 |
| d. 명곡 → 땡곡 | 이명박 → 이땡박 |
| e. 유재석 → 유재석 | |

(3a)에서 ‘귀’를 ‘커’로, (3b)에서 ‘머’를 ‘대’로 음절 전체로 대체했다. (3c)에서 글자 ‘고’를 자소 ‘교’로, 자소 ‘교’을 글자 ‘고’로, (3d)에서 글자 ‘머’를 글자 ‘띠’로 대체했다. (3e)에서 ‘ㅍ’의 경우 ‘ㄱ’을 ‘ㅍ’으로 대체했다. 글자는 이제 문자라기보다 이미지로 보여 진다.

또한 한글자모를 도상적으로 비슷한 한자나 숫자, 라틴문자로 대체한다.

(4) 한글 음절 전체를 한자로 대치⁹⁾

쭈 ↔ 卒 가 ↔ 才 고 ↔ 衛 나 ↔ 止 짜라면-푸라면
 뽕 ↔ 引 국 ↔ 弓 소 ↔ 小 흡 ↔ 淸 김장훈(金長勳) → ‘쑤튼훈’¹⁰⁾

(5) 한글 자음을 한자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口 久 大 刁 巨 立 云

9) 한 글자쌍이 상호 호환되므로 ↔를 사용했다.

10) 연예인 김장훈(金長勳)의 ‘쑤’을 ‘쑤’으로, ‘長’을 ‘튼’으로 대치하여 ‘쑤튼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6) 한글을 숫자로 대치

ㅇ ㄱ ㄹ ㅇ ↔ 0720 망 ↔ ㄹ5 리 ↔ 21¹¹⁾ 양파 ↔ 8k.ㅏㅓㅓ

(7) 한글을 라틴문자로 대치

또 ↔ SE 야 ↔ OF EH ↔ 태
 너구리 → RtA 명박 → Jㅍ0묘으 개새끼 ↔ 7H*H77l

야민정음이나 외계어의 시각유희는 글자의 장식적 측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가독성은 떨어진다. 활자의 보편성은 해체되고, 개별화되면서 만드는 개인에 따라 기표와 기의의 1대1 대응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쓰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언어코드로 의사소통을 하는 점에서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야민정음은 기존의 통신언어의 글자와 달리 글자의 방향을 다양하게 바꾸었다. 이렇게 활자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낯설게 하기 효과를 거둔다. (8a)는 ‘비버’를 오른쪽 90°회전시키면 ‘뜨또’가 ‘비버’로 읽혀 질 수 있다. (8b)는 ‘호’를 왼쪽으로 90°회전시키면 ‘J어’가 ‘호’처럼 보이고, (8c)는 상하 반전시키거나, (8d)는 오른쪽으로 180°회전시키거나, (7e)는 좌우반전을 시켰다.

(8) 표준어		야민정음		표준어		야민정음
a. 비버	→	뜨또		비니	↔	뜰
이명박	→	Jㅍ0묘으		비빔밥	→	ㅓㅍㅓㅓㅓㅓ
b. 똥	↔	버0		호	→	J어
c. 국어국문	→	논어논곰		눈물	→	곡름
d. 아이폰	↔	꺠I어0		육군	↔	곤농
e. 이재오	→	왜지0				

11) MBC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 참수리를 ‘참수21’로 잘못 내보냈다.

글자 방향을 바꾼 고전적 예는 ‘KIN’으로 90° 왼쪽으로 회전하면 ‘즐’이 된다. (8)에 나타난 야민정음 표기는 한글 가로쓰기 텍스트의 좌에서 우로 읽기가 해체되고 다양하게 읽는 법을 요구한다(윤재성, 2003: 59). 더 이상 읽는 활자가 아니라 보는 이미지이다.

시각유희는 한 심벌에 상호보완적이거나 상호모순적인 다른 심벌을 결합하여 조합할 수 있다. 이순만(2001: 163)은 ‘Ministop’이라는 일본의 편의점은 ‘집과 나무’의 이미지와 ‘Ministop’이라는 로고와의 조합으로 보았다.



〈그림 15〉 조합

야민정음 중에서 글자 2개를 압착해서 원글자와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도록 조합한 예가 있다.

(9)

- | | | |
|-----------------|------------|----------|
| a. 불불이봐라 ↔ 뽀이봐라 | 보보경심 ↔ 뽀경심 | 굴국밥 → 꺾밥 |
| b. 조조 ↔ 쪼 | 구구 ↔ 꺾 | 존종 ↔ 쪼 |
| c. ㅏㅓㅓ ↔ 파 | ㅏㅓㄹㅓ ↔ 썰 | |

(9a)와 (9b)는 공통으로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합쳐져서 글자 하나로 나타나고, (9c)는 모음자 3개 ‘ㅏㅓㅓ’가 합쳐져서 1음절자 ‘파’로 나타나고, 자음자 4개 ‘ㅏㅓㄹㅓ’가 합쳐져서 1음절자 ‘썰’이 된다. 야민정음은 오로지 한글의 자모를 해체하고 조합하면서 즐기는 유희의 결과이다.

그 외에도 타인의 부모님을 헐뜯는 폐륜성 은어인 ‘느금’(느그 엄마: 너희 어머니), ‘응 니애미’(응, 너희 엄마)를 사용하고, 고인을 모독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결속을 나타내었다(국립국어원 2017: 162). 극우성향

과 극단적인 혐오성향을 띤 커뮤니티들은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비하할 목적으로 야민정음을 사용하였다.

(10)

박근혜(대통령) → 박근혜 ¹²⁾	이명박(대통령) → 이명박
김대중(대통령) → 김머중 ¹³⁾	(세월호) 유기족 → 유가죽
대구 → 머구	광주 → 팡주

자기들끼리 배타적으로 야민정음을 사용하면서 비방하는 놀이를 즐겼다. 야민정음은 한글 해체 후 다른 자모로 대체하나, 급식체는 단어의 음절 전체를 자르고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무한반복하는 점에서 다르다.

3.2. 급식체의 언어유희

10대와 20대들이 야민정음과 급식체라는 유행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알 수 없는 언어 코드를 공유하여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기성세대가 모르거나 그들과 다른 언어코드를 사용하면서 기성세대와 구별 짓기를 하고, 그들만의 놀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인터넷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고 자문자답을 하는 경우나 상대방에게 인정하는지 물을 때, 상대의 말에 동의하거나 공감할 때 ‘인정 어 인정’ 또는 두자어로 ‘ㅇㅈ? ㅇㅇㅈ’ 또는 ‘ㅇㅈ’이라 쓴다. ‘ㅇㅈ’이나 ‘ㅇㅈ? ㅇㅇㅈ’이 널리 확산되어 점차 유행어가 되고,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자 ‘인정’과 의미가 비슷한 ‘동의’로 바뀌어 ‘동의? 어 보감’이 등장하더니, 얼마 후 ‘인정’과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이동휘? 어 박보감’, ‘용비? 어~천가’ 등으로 대체되었다.

12) <근혜는 없다> 자신감 되찾은 시민사회> 『경향신문』 2016.11.05. 기사.

13) <야민정음을 알아보자> 일베저장소 2014.09.24. <http://www.ilbe.com/4359958967>

(11)

인정? 어 린정

↓

동의? 어 보감

↓

이동휘? 어 박보검

↓

용비? 어천가 / 양파? 어~ 니언! / 의견? 어 피니언/ 머라이? 어 캐리/
 고등? 어 조림 / 아빠? ~ 어디가 / 앞니? 어 금니/ 조개? ~ 어 패류 /
 오징? 어 볶음 / 비긴 ? 어 계인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경쟁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기표가 만들어지지만, ‘용비’, ‘양파’, ‘머라이’, ‘고등’, ‘아빠’, ‘앞니’, ‘조개’, ‘오징’, ‘비긴’ 등 기표는 원래 ‘인정’이 가지는 기의(의미)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기표 ‘용비’, ‘양파’, ‘머라이’, ‘고등’, ‘아빠’, ‘앞니’, ‘조개’, ‘오징’, ‘비긴’ 는 기의 ‘인정’과 일대일 대응이 없고, 다양한 기표의 등장으로 기의는 끊임없이 기표와의 연결이 연기된다. 데리다에 따르면 이러한 예는 기의 없는 기표의 유희이다. 수많은 기표가 생성된 이러한 예는 통신언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다.

이 현상에 대해 설혁수(2017.10. 급식체 특강3)는 어른들이 급식체 어휘를 알게 되면 10대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른들이 모르는 다른 형태로 바꾼다고 분석했다.

급식체는 원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한 부분을 잘라서 결합한 후, 무한 반복하여 누가 좀 더 긴 급식체를 유려하게 구사하는지 경쟁적으로 놀이한다. 2017.10.21. tvN SNL 코리아에서 <급식체특강2>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빠쥬가 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장면에 등장한 “에바세바쭈바”가 그 예이다.



〈그림 16〉 'tvN SNL 코리아 9', 미생 패러디, 2017.10.21.

급식체를 사용하는 신입사원 안기모가 부장님 앞에서 “제가 에바세바쭈바댄스를 16배속으로 춰버렸네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부장님 인정?”이라고 묻는다. 에러(error)과 오버(바)액션(overaction)¹⁴⁾이 축약된 ‘에바’는 ‘에바췌바쭈바 댄스’ 등으로 ‘바’를 반복한다. 이때 ‘췌바’와 ‘에바’, ‘쭈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처럼 급식체는 원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에러’와 ‘오바’를 부분절취 하여 ‘에바췌바쭈바’등으로 무한반복 하여 단어를 파생하지만, 파생된 단어는 의미가 없다. 오영진(2018: 64-65)은 이러한 표현이 마치 감정절취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2017.10.31.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서 한 고객이 급식체로 “삼성 페이를 엠티 스크린에 도입한 아이디어 지리고 랫잇고?”란 제목으로 물었다.¹⁵⁾

14) ‘over’의 일본식 표현이 ‘오바’이다.

15) http://community.samsungmembers.com/ko_KR#/search_post?categoryId=505&postId=182696

[제안] 삼성 페이를 옛지스크린에 도입한 아이디어 지리고 랫잇고?



께께께께께께 2017-10-31 조회 수 : 7449

이거 완전 삼성 회장 이거니쨌까지 돈벌생각에 신나서 팬티벗고 춤추는 각 인지용? 아무리 생각해
도 내 아이디어 1900년대 일제시대때 안중근이 쓴 락잇고지리고알파고신나고중앙고인
거 인지용? 고추장에 쓱쓱 비벼서 간장찍어서 먹는 밥경찰을 넘어선 밥통령인거 켜s 개발진 생각
은 완전 지리는 각? 오지는 각? 삼성페이 담당자 지리고출신인거 빼박캔트 ㅇㄱㅇㅇ ㅂㅂㅂㅂ?

<그림 17> 삼성 멤버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지다’와 ‘오달지다’는 동의어로 ‘마음이 흡족하다’, ‘대단하다’, ‘엄청나
다’라는 뜻이고, ‘지리다’는 ‘오줌 냄새와 같거나 그런 맛이 있다는 뜻’의 부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급식체에서 ‘~지리다’는 ‘~오지다’와
결합하여 ‘오지고 지리고’는 ‘끝내준다’는 뜻으로 쓰인다. ‘오지다’는 어말어
미 ‘-고’와 연결되면서 ‘오지고지리고랏잇고아미고알파고...’ 등으로 반복되
는데, ‘랏잇고(let it go)’, ‘아미고(amigo)’, ‘알파고’는 ‘오지고’에서 ‘-고’를
잘라 다른 형태 ‘랏잇’, ‘아미’, ‘알파’ 등과 결합한다. 이들 단어는 ‘고’라는
마지막 글자만 같지 의미의 유사성은 전혀 없다. ‘빼박캔트버켄스탁버벌진
트...’도 ‘빼박캔트’의 두자어 ‘ㅂㅂㅂㅂ트’가 초성과 소리가 비슷한 ‘버켄스탁
(ㅂㅂㅂㅂ트)’, ‘버벌진트(ㅂㅂㅂㅂ트)’ 등으로 변형되면서 연결된다. 급식체의
이러한 표현은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연결 구조를 해체하고, 기표는 끊임없
이 방랑하면서 유희의 도구가 된다.¹⁶⁾

경향신문 2018.11.26.에 등장한 급식체에도 마찬가지로 부분절취와 무한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12)

“인정? 어 인정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인정 팩트 체크 들어가면 샘
오취리도 놀라서 예취하는 각이고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인정”

16) <급식체란 무엇인가, 급식체, 시대의 언어콘텐츠>, 오마이뉴스 기사, 2017.11.20.

안 해서 후회한다면 후회할 시간을 후회하는 각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바
 참치 넙치 쾡치 가문의 수치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예각 둔각 사각 삼각 오각
 이거레알 반박불가 빠박캔트 버벌진트 버켄스탁인 부분 쿵쿵따리 쿵쿵따 인정
따리 인정따 동휘? 어~ 보검.”(경향신문 2017.11.26. 기사)¹⁷⁾

5. 결론

신조어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기표는 새로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있다. 야민정음에서는 한글 자모의 도상성에 착안하여 자모를 해체하여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시각유희를 보여주고 있다. 급식체에서는 단어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단어로 끊임없이 대체하거나, 단어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무한반복하고, 이들 대체된 단어는 원래 단어와 아무런 의미의 연관성이 없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기표의 유희만 난무하고 기의는 찾기 힘들다. 야민정음과 급식체는 더 이상 10·20대의 은어가 아니다. 마침내 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로 활용되어 2017년 10~11월에 tvN의 <SNL 코리아9>에서 “급식체 특강”으로 방송되었다. 여러 방송 자막에 “인정, 어~인정”과 “ㅇㄱㄹㅇ(이거 레알)”이 나타나고, “동의? 어보검!”이라는 광고문구가 나타났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CU 편의점 케이크는 ‘ㅇㄱㄹㅇㅂㅂㅂㄱ(어거레알 반박불가)’와 ‘ㄷㅇ? ㅇㅂㄱ’(동의 어보검), ‘ㅇㅈ? ㅇㅇㅈ’(인정 어인정) 등 급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야민정음과 급식체는 해체 단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결국 원래 단어의 의미(기의)는 계속 기표와의 연관성을 찾느라 미끄러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야민정음과 급식체라는 언어코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성세대와의 차별화 하고, 그들만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누구나 스마

17) 경향신문 기사 <급식체 열풍? “어, 인정”> 2017.11.26.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62254015&code=960100#csidx67fd2ce4b9206b1898a9f1e39000a91

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인터넷방송 대화창 등을 통해서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야민정음과 급식체의 모든 표현들이 문법적이거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윤택유 측면에서 본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동안의 통신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 중 얼마는 살아남을 것이고,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배, 「급식체를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청소년문화포럼』 53,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8, 201~206면.
- 강옥미, 「해체주의 관점에서 본 통신언어의 언어유희」,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2004, 81~113면.
-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2017.
- 김상환, 「이상문학의 존재론적 이해」, 권영민 편저, 『이상문학연구』, 문학사상사, 1998, 133~165면.
- 데리다·김용권,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 박남철, 『지상의 인간』,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36, 1984.
- 박정희·김민, 「청소년의 변형문법(외계어) 현상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9.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85~100면.
- 박진호, 「새로운 인지방식의 탄생, ‘야민정음’ 현상의 의미와 가치」, 토론문,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8, 88~89면.
- 박현수, 「한국 전위시의 조건과 근대출판의 시학」,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45~271면.
- 변윤언·이광호, 「청소년의 인터넷상 언어사용에 나타난 문화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 25~37면.
- 신진, 「소위 ‘차유(差喻, transphor)’의 유형」,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485~514면.
- 신호철, 「인터넷 통신언어 속의 외계어에 대한 고찰」,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5~31면.

- 오영진, 「‘금식체’, ‘야민정음’을 비롯한 sub-culture계 언어의 발생 배경과 특성」,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8, 59~79면.
- 윤재성,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해체주의 표현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6권 3호, 한국디자인과학학회, 2003.12. 55~62면.
- 이순만, 「시각환경을 위한 그림문자의 유희성 연구」, 『미술디자인 논문집』 1.6, 홍익대학교, 2001, 149~168면.
- 이유진·전양덕, 「시각언어로 표현한 한국 현대 시의 시각은유 분석」, 『디자인학연구』 81호(22.1), 한국디자인학회, 2009.02, 151~162면.
-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2011, 29~69면.
- 이지용, 「새로운 인지방식의 탄생, ‘야민정음’ 현상의 의미와 가치 - 세종머양은 이룬 평작들에 대해 례금 흘리지 않고 커워워할 각이다」,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8. 81~87면.
- 이형권, 「'80년대 해체시와 아버지 살해 욕망 - 황지우, 박남철, 장정엘의 시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43, 어문연구학회, 2003, 581~608면.
- 임경순, 「인터넷 통신언어 속의 외계어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권 1호, 국제어문학회, 2005, 19~21면.
- 장 훈, 「중 고등부/ 청소년을 위한 패스워드(29): “이행행”과 “투투데이”를 아세요?」, 『교육교회』 310,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 2003, 144~147면.
- 전광실, 「한글 이모티콘과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와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1., 한국기초조형학회, 2008, 651~659면.
- 정홍균,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의 해체적 표현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51.0,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7.12., 143~152면.
- 조현용, 「황지우와 박남철의 언어학적 문체 비교」, 『고봉논집』, 17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 51~87면.
- 최지혜, 『OECD 회원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10.30.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3, 문학과지성사.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econstructionism
for Yaminjeongeum and Geupsikche

Kang, Ong-mi*

Recently Yaminjeongeum and Geupsikche are frequently used on internet, chatting and cellular phone messages. Personal internet broadcasting Jockeys(BJs) began to use Yaminjeongeum on their broadcastings for fun with viewers and teenagers and twenties imitated those expressions with BJs and other viewers on chatting. Those expressions spread to other internet sites, newspaper, TV broadcast programs, and advertisements.

Yaminjeongeum and Geupsikche show the deconstruction of digital typography in Korean alphabets. Yaminjeongeum is classified into visual pun since Korean alphabets are substituted by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Chinese characters or arabic numbers. Substitution is based on the visual resemblance of letter shapes. Traditional linear typography design is deconstructed by letter shape, arrangement, direction and spacing words.

Geupsikche is used especially by teenagers who eat school meals. Words are coined by acronym such as ㅇㅈ, ㅇㅈ?ㅇㅇㅈ, ㄴㅇㅈ, ㄹㅇ. Original meaning of words '개' and '썸' is changed when they are prefixed to other others such as 개이득(ㄱㅇㄷ) and 썸이득(ㅅㅇㄷ). When meaning of '인정(ㅇㅈ) 어 인정' is widespread to people, they coin other expressions which do not correspond to their original meaning: '동의? 어 보감', '이동휘? 어 박보감', '용비? 어천가', '양파? 어~ 니언!' This is a play of signifiants. They just play with letters for fun.

The deconstruction of digital typography started in the 1920s. In the 1930s Sang Lee tried destruction of Korean typography in his poems and

* Chosun University

in the 1980-1990s Namcheol Park and Jiwoo Hwang also tried to deconstruct traditional principle and forms of poetics. They try to propose visualization of Korean poems by destruction of Korean typography in terms of substitution of other symbols.

Key Words : Yaminjeongeum, Geupsikche, Visual Pun, Deconstruction, Typography

<필자소개>

이름 : 강옥미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ongmikang@gmail.com

논문투고일 : 2018년 06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20일